

2020-6호

AI TREND WATCH

2020. 5. 15.

주요 이슈

- ▶ 일본의 정보은행 인증 제도와 데이터 유통 서비스 모델

최신 동향

- ▶ 구글, 「The A-Z of AI」 온라인 가이드 북 발간
- ▶ 글로벌 AI 어젠다 : 「약속, 현실, 데이터 공유의 미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이슈

일본의 정보은행 인증 제도와 데이터 유통 서비스 모델

개요

◆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여 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

- ▶ 일본 정부는 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5년)을 통해 개인정보 유통을 허용했고,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16년), 차세대 의료기반법('17년) 등을 통해 제도적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 ▶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2020년까지 개인 데이터 유통 환경 실현을 위해 정보은행* 등의 데이터 유통시장 구축과 데이터 취급에 관한 규칙 정비를 핵심과제로 선정

* 정보은행: 개인과 데이터 활용 계약을 체결한 후 정보은행 개인 데이터 저장소(PDS)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개인의 위임에 따라 개인 대신 정보제공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여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 ▶ 정보은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발표('18.6.26.)한 이후 일본 IT단체연맹이 정보은행 인증 제도를 실시하면서 2020년 4월말까지 총 5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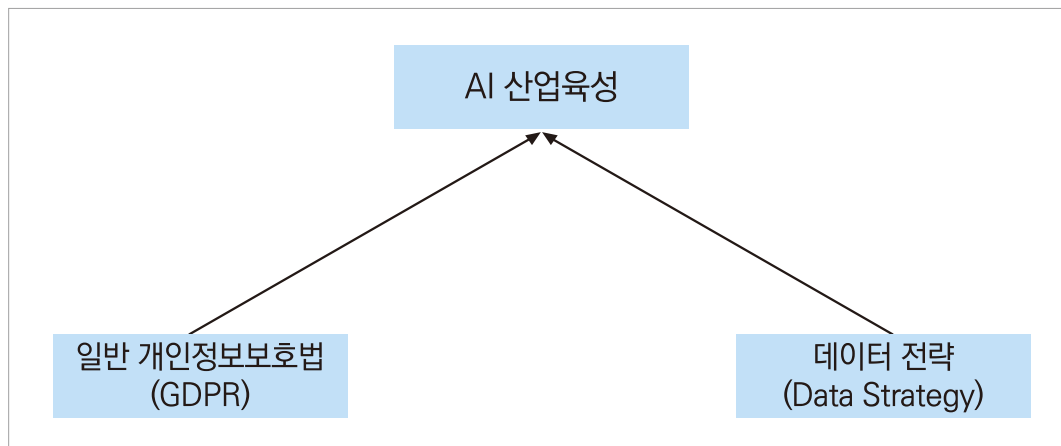
◆ 본 고에서는 일본 정부 주도의 정보은행 도입 배경, 인증제도, 데이터 유통 서비스 모델, 성과와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 국내 데이터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배경) AI 기술 진전과 함께 세계 각국은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 전략 추진과 개인 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

- ▶ 해외 주요국들은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주권에 관한 법률 정비를 추진
 - (미국) 'Smart Disclosure, MyData Initiative'에 근거하여 개별법 및 자율 규제에 의해 데이터 이동성 실현을 도모
 - (중국) '사이버 보안 법률'에 데이터 이동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사후 규제 체제로 전환하여 규제 장벽을 완화한 상황
 - (EU)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EU 역내에서 통일된 규칙인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2018.5.)을 제정한 이후 최근 집행위원회(EC)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새로운 규제·제안·과제 등을 포함한 AI 백서와 데이터 전략(2020.2.)을 발표하고, 데이터 경제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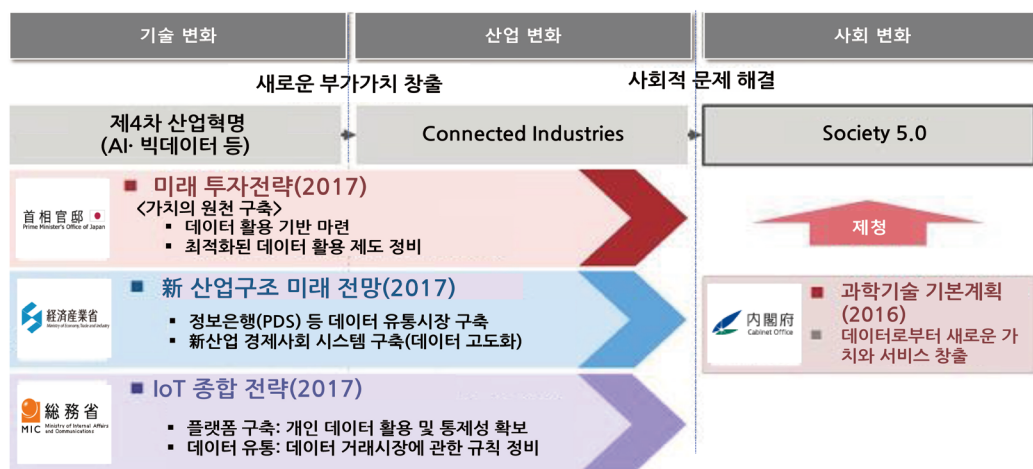
[EU의 데이터 활용 및 AI 산업육성 체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2020.4.6.)

- ▶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공포('20.2.4.)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0.3.30.)되는 등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변화 흐름에 본격적으로 대응
 - (핵심 내용) 개인정보의 정의가 명확해지고,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가 제도화됨으로써 향후 빅데이터 분석 및 AI 등 신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경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유관 정책) 과기정통부(데이터 바우처, 마이데이터, 데이터 플래그십 실증사업 지원 2020.3.), 금융위원회(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래소 출범 2020.1.), 행안부(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2020.3.), 산자부(AI 데이터 국제표준 선도 2020.4.)
- ▶ 일본도 2016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
 - (배경) 지금까지 개인 데이터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라는 거대 IT 기업과 소수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수집·점유되고 있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데이터를 개인에게 환원하여 많은 사업자가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법률·제도 정비를 추진(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제정, 2016.12.)
 - (운영) 개인 데이터와 산업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데이터 유통·활용의 전문가 워킹 그룹을 운영(2018.7.)
 - (전략) 일본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2020년까지 개인 데이터 유통환경 실현을 위해 정보은행(PDS, Personal Data Store) 등의 데이터 유통시장 구축과 데이터 취급에 관한 규칙 정비를 핵심과제로 선정

[일본 Society 5.0 실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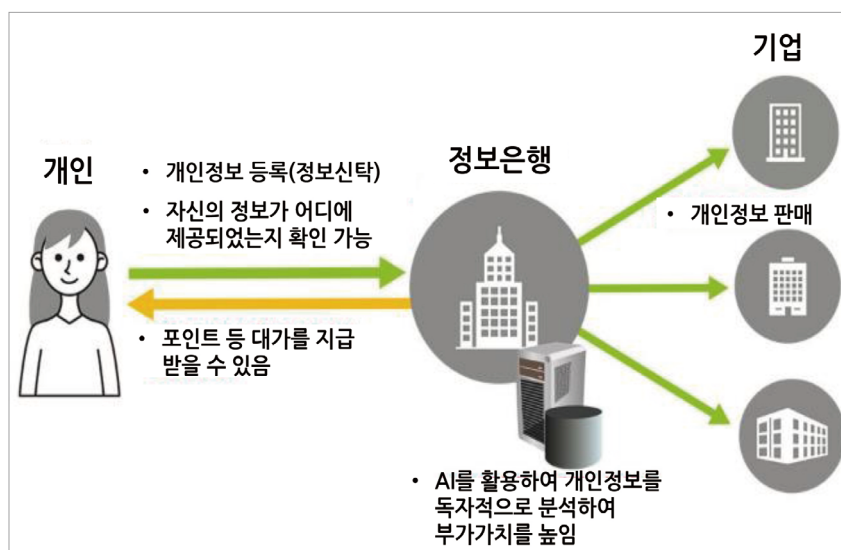


자료: 후지쯔연구소(2019)

◆ (인증제도)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018년 6월 정보은행 사업자를 인증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12월부터 일본 IT단체연맹이 정보은행 인증제도를 시작

- ▶ 정보은행은 개인과 데이터 활용 계약을 체결한 후 정보은행 개인 데이터 저장소(PDS)¹⁾를 통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개인의 위임에 따라 개인 대신 정보제공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 ▶ 개인은 자신의 구매이력 정보나 자동차 운행정보, 전력이용 데이터, 건강정보 등을 일본 IT단체연맹이 인증한 정보은행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쿠폰, 할인권, 디지털화폐, 포인트, 지역상품권, 개인 우대 서비스 등의 보상을 받는 구조

[정보은행 서비스 구조]



자료: TIME&SPACE(2020)

1) PDS 시스템 :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축적하는 시스템으로 정보제공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정보은행을 활용하여 정보를 관리하고 제3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역할 수행

- ▶ 일본 IT단체연맹의 정보은행 공인인증은 일반 인증과 P 인증으로 구분되며, 일반 인증은 2년마다 갱신 심사를 거쳐 인증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인증을 업데이트함

〈정보은행 인증 구분〉

구분	일반 인증	P 인증
인증 의미	실시 중인 정보은행의 운영 및 실행 체제가 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	예정된 정보은행 운영계획 검토 결과 시범 서비스가 가능함을 인증
신청 대상	정보은행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정보은행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
심사 방법	규정·순서·리스크관리 등 모든 계획을 정리한 문서 심사	예정된 서비스의 규정·순서·리스크의 모든 계획을 정리한 문서를 심사
심사·인증 수수료	• 심사료 : 약 804만 원(70만 엔) / 건 [인증 마크, ISMS 인증 유무 등에 따라 상이] • 인증료 : 약 574만 원(50만 엔) / 건 [2년 간 유효]	
사후관리	• 1년마다 감독 심사 실시 - 문제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사 절차 후 개선, 일시 정지, 정지, 취소 등 조치	
인증 유효기간	• 2년마다 갱신	• 서비스 개시 후 운영기록을 정비하여 신속히 정보은행 인증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발급 • P 인증은 갱신·재신청 불가
인증 마크		
인증 기업 (인증 날짜)	• DataSign(2020.2.26.)	• 미츠이 스미토모 신탁은행(2019.6.21.) • 펠리카 포켓 마케팅(2019.6.21.) • J.Score(2019.12.24.) • 중부 전력(2020.2.4.)

자료: 이윤정(2019)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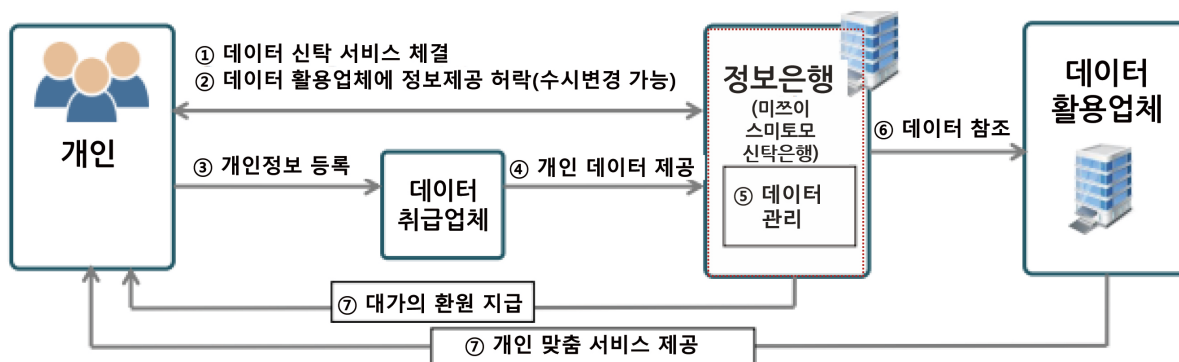
- ◆ (데이터 유통 서비스 모델) 2020년 4월말 기준 정보은행 인증마크를 획득한 사업은 ①데이터 신탁 서비스 ②지역 진흥 플랫폼 서비스 ③정보제공 서비스 ④지역형 정보은행 서비스 ⑤패스핏(pasfit) 서비스 등 5가지가 있음

▶ [사례 1] 데이터 신탁 서비스(미츠이 스미토모 신탁은행)

- 최초로 정보은행 P 인증을 받았으며, 신탁은행으로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점으로 폭넓은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은행 사업을 시행
- 개인의 위임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데이터 활용업체에 정보를 제공하여 그 이익을 고객에게 환원하는 데이터 신탁 서비스 제공
- 오사카 지역의 의료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른 기업들이 이들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에게 최적 의료 서비스를 지역 단위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 정보은행이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약 10여 개의 기업 건강검진 데이터 관리 회사 등과 데이터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업의 데이터 이용 목적은 상품개발과 고객수요 분석에 한정

사례 1. 데이터 신탁 서비스(미즈이 스미토모 신탁은행)-2019년 6월 21일 P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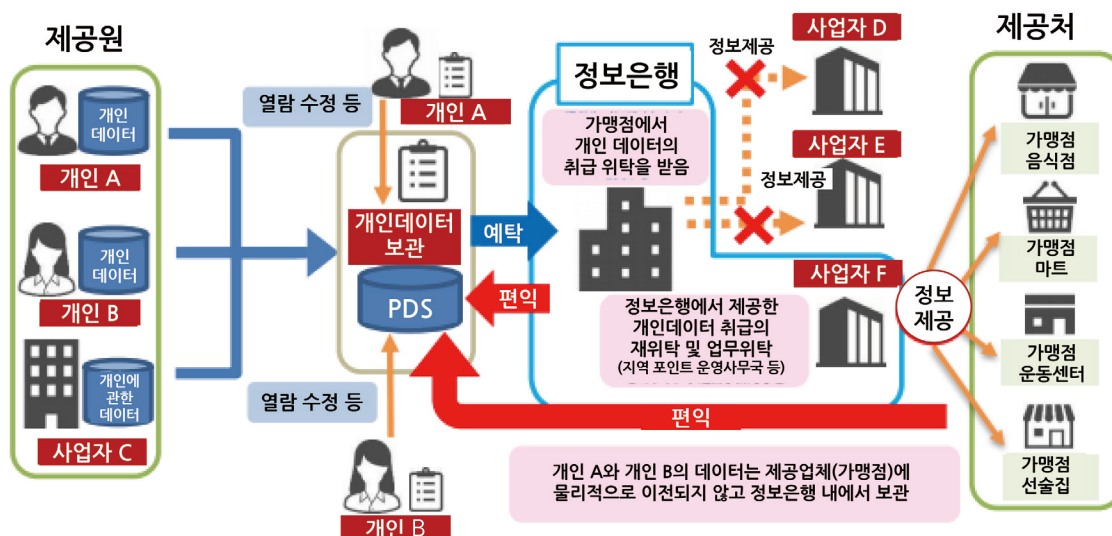


자료: 일본 IT단체연맹(<https://www.tpdms.jp>) 보도자료

▶ [사례 2] 지역 진흥 플랫폼 서비스(펠리카 포켓 마케팅)

- ICT를 활용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지역 포인트 사업 등)을 제공
- 개인은 자신의 속성 데이터(연령, 성별, 거주지 등) 외에도 포인트를 통해 얻어진 활동 데이터(자원봉사 및 건강활동) 등을 앱상에서 등록하고 이에 따른 정보나 쿠폰을 취득
- 음식점, 마트, 운동센터, 주점 등의 가맹 점포나 광고주가 되는 기업은 세그먼트된 타겟(Target) 대상자에게 쿠폰 전달

사례 2. 지역 진흥 플랫폼(펠리카 포켓 마케팅)-2019년 6월 21일 P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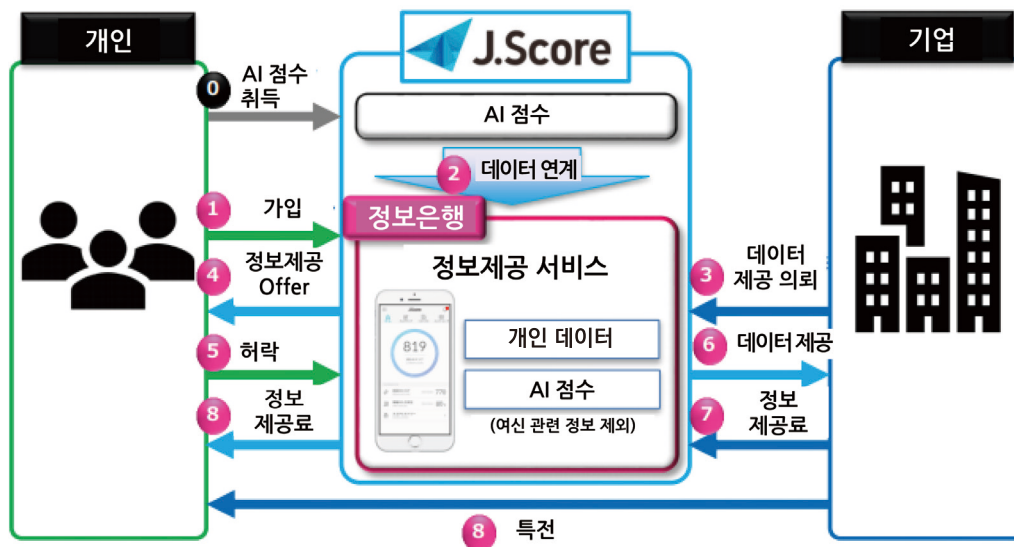


자료: 일본 IT단체연맹(<https://www.tpdms.jp>) 보도자료

▶ [사례 3] 정보제공 서비스(제이 스코어, J.Score)²⁾

- 제이 스코어(J.Score)는 2016년 미즈호은행과 소프트뱅크가 공동 출자·설립하였으며, AI 신용등급 평가(AI score rating) 업무를 수행
- 개인의 연령과 연수입, 근무처, 성격과 취향,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정보를 AI 기술로 분석하여 개인의 신용력과 가능성을 스코어인 AI 점수로 제공
- 제이 스코어(J.Score)의 AI 점수를 취득한 개인이 자신의 의사로 등록된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제공료나 특전 등의 대가를 수령

사례 3. 정보제공 서비스(제이 스코어-J Score)-2019년 12월 24일 P 인증



자료: 일본 IT단체연맹(<https://www.tpdms.jp>) 보도자료

▶ [사례 4] 지역형 정보은행 서비스(중부 전력)

- 커뮤니티 지원 인프라 창조의 실현을 위해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역 내에 유통시킴으로써 일상생활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 내 건강증진과 지역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함
- 개인이 앱을 통해서 기본 속성과 흥미·관심 사항, 행동 이력·예정 등의 개인 데이터를 지역형 정보은행에 위탁함으로써 퍼스널 데이터의 제공처인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캠페인 정보나 쿠폰, 포인트 등의 편익을 받음
- 개인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제공처로 이전하지 않고 마케팅 지원 서비스 부문 내에 보관되며, 제공처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 권한을 갖지 않음
- 2020년 3월부터 아이치현 토요타시에서 서비스를 시험 제공하고 점차 대상 지역을 확대

2) 개인대상 융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이 스코어는 연간수입과 학력 등을 토대로 인공지능(AI)이 점수를 매겨 고객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객이 점수의 외부제공에 동의하면 현금이나 전자화폐를 지급하고 금리 인하 등의 우대혜택도 제공

사례 4. 지역형 정보은행 서비스(중부 전력)-2020년 2월 4일 P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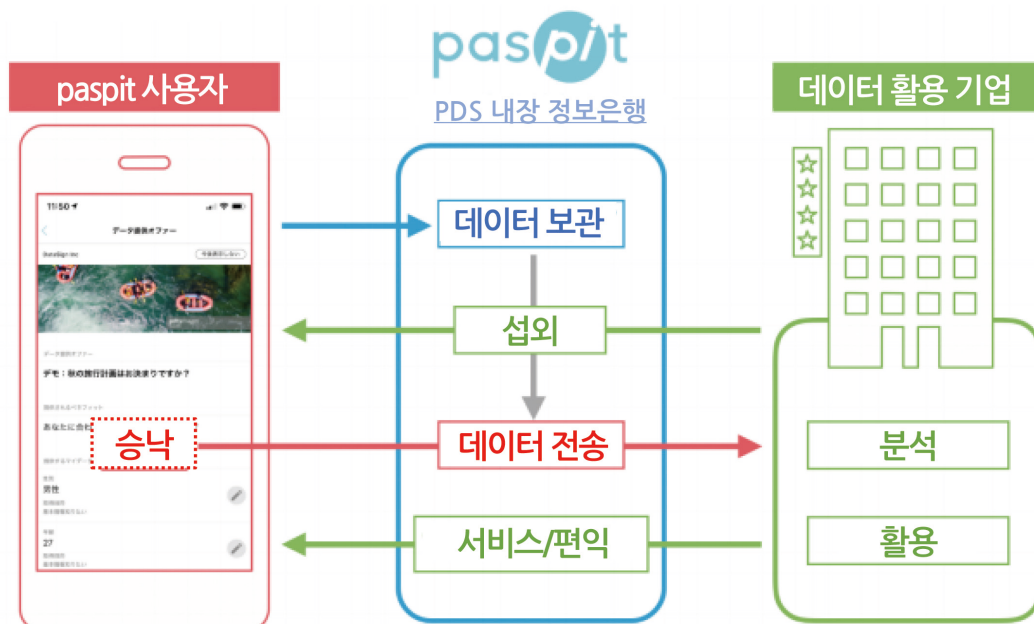


자료: 일본 IT단체연맹(<https://www.tpdms.jp>) 보도자료

▶ [사례 5] 패스핏(paspit) 서비스(데이터 싸인, DataSign)

- 데이터 싸인(DataSign)은 데이터 취득·활용의 투명성 확보와 개인중심의 데이터 유통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16년에 설립
- 패스핏(paspit) 서비스는 PDS 시스템이 내장된 정보은행 서비스로 개인 데이터를 정보은행 기업용 플랫폼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 패스핏(paspit) 서비스는 개인 ID, PW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PDS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합 관리하는 한편 데이터 유통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고, 기술 및 데이터 제공 업체마다 정보를 토큰화하고 추적을 확보하는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

사례 5. Paspit(패스핏) 서비스(DataSign)-2020년 2월 26일 일반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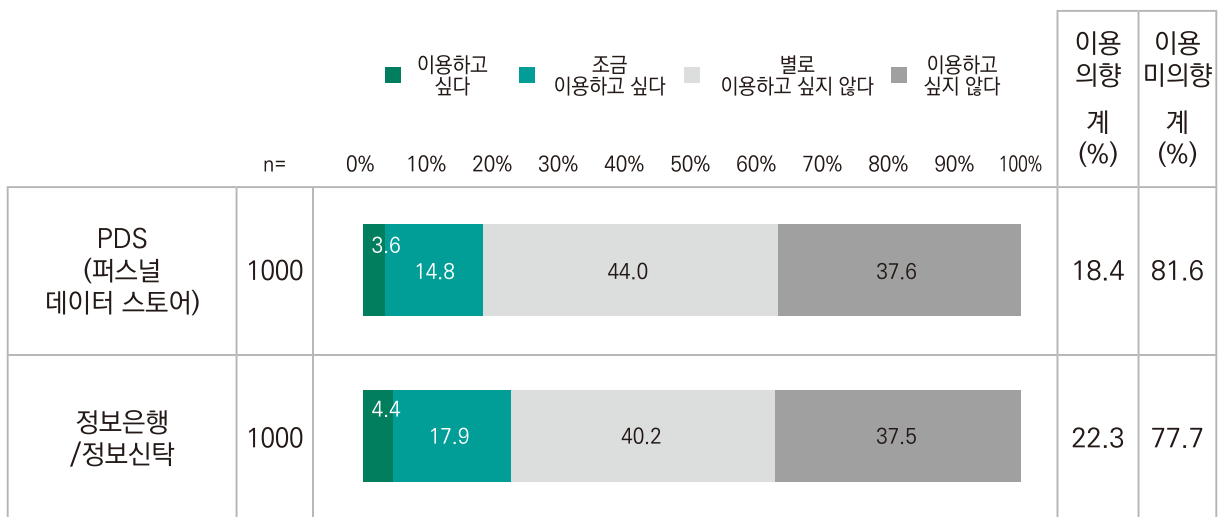


자료: 일본 IT단체연맹(<https://www.tpdms.jp>) 보도자료

◆ (성과와 한계점) 정보은행은 개인정보를 유통시키는 핵심이 되는 조직으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데이터 관리 방법이나 표준화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개인 데이터 제공과 기업의 활용이 지체되고 있음

- ▶ 정보은행은 개인 데이터의 사용 범위 등에 관해 예탁자의 힘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유통을 높이고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
- ▶ 하지만 데이터 이동성 권한, 개별 동의와 포괄적 동의 여부 등의 법률적 이슈 이외에 개인에게 환원되는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은 점, 정보은행의 개인 데이터 관리 방법이나 공개 형식 등이 상이한 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의 한계점이 존재
 - 일본 정부는 내각부 산하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을 가동하여 구체적인 데이터 취급 규정 통일안을 마련할 계획
- ▶ 일본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은행을 통한 개인 데이터 제공에 여전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
 -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1000명 가운데 정보은행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7.7%에 이르고 있으며, 기업도 정보은행마다 제공하는 개인 데이터의 질(質)이 달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

[일본 정보은행 이용의향 조사 결과]



자료: 일본 내각관방(2019.2.4.)

시 사 점

- ◆ 일본은 정보은행 인증사업을 시작으로 개인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은행 설립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데이터 기반 경제를 실현
 - ▶ 정보은행 인증제도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개인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촉진이 기대됨
- ◆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하여 관련 부처는 데이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
 - ▶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개인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주체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8대 지원 분야, 약 97억 원 예산 투입)
- ◆ 향후 국내 데이터 기반 사회 흐름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유통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유통·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전제로 관련 법규 정비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개인의 데이터 주권,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데이터가 안전하고 쉽게 유통되는 생태계 환경 조성이 필요

참고문헌

- 김규판(2018. 10.), “일본에서의 데이터뱅크 설립 동향”, 은행연합회.
- 김예진(2019. 5. 29.), “일본, 정보은행 활성화 위해 개인 데이터 취급 규정 통일”, 아시아투데이.
- 이승준(2019. 5. 20.), “일본의 마이데이터 활용, 정보은행 본격화”, 투이컨설팅.
- 이윤정(2019. 7. 31.), “일본 정보은행 인정 제도”, KISA Market Report.
- 조성은 외(2019. 10.),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KISDI.
- 한국무역협회(2020. 4. 6.), “EU 신정부의 미래 산업 전략과 시사점”, KITA Market Report.
- 후지쓰연구소(2019.), “日本国内のデータ利活用に係る昨今の制度検討の状況”.
- 内閣官房(2019. 2. 4.), “我が国におけるデータ活用に関する意識調査”.
- DIR(2019. 12. 11.), “情報銀行の事業化の状況とビジネスモデル”, Daiwa Institute of Research.
- TIME&SPACE(2020. 2. 18), “個人情報を管理する『情報銀行』とは？ その仕組みや利用するメリットを解説”.
- 일본 IT단체연맹(<https://www.tpdms.jp>) 보도자료.

최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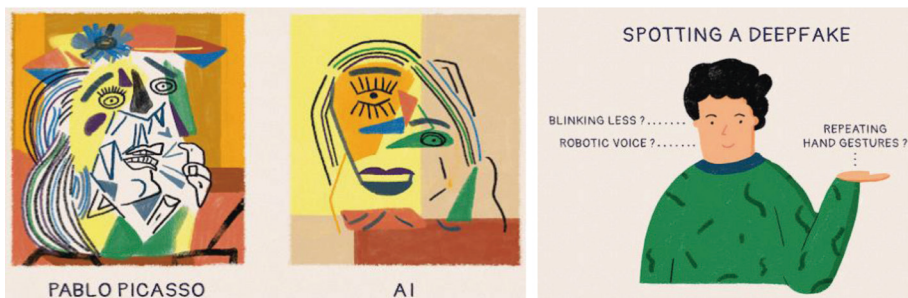
구글, 「The A-Z of AI」
온라인 가이드 북 발간

주요 내용

◆ 구글과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 「The A-Z of AI」 온라인 가이드 북 발간

- ▶ 「인공지능(AI) A-Z」는 인공지능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로 AI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며,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사용되며,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소개
 - 알파벳 A부터 Z까지 26개 핵심(key) 메시지로 나누어 AI가 우리 일상과 업무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모르고 있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기술 문제, 생산 기술, 사용 사례, 사회적 의미, 윤리적 고려 사항 등을 다루고 있음
 - A(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은 지능적인 인간 행동을 모방하도록 가르치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 부여된 이름’이라고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설명
 - B(Bias) : ‘편향은 불완전한 데이터가 AI를 편향적으로 만들고, 이러한 AI 시스템 결과는 실제 세계에서 발견되는 기존의 편견을 증폭시키는 데이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 D(Datasets) : ‘데이터셋은 AI에게 세상을 가르치는데 사용되는 정보라고 정의하며, AI 교육에 사용되는 대규모 디지털 정보 모음’이라고 설명
 - F(Fakes) : ‘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이미지, 음성, 음악, 비디오를 초현실적인 딥페이크(위조)를 만드는 것’으로 설명
- ▶ 세부적으로 △AI 기초(AI Fundamentals) △AI 제작(Making AI) △사회와 AI(Society & AI) △AI 활용(Using AI)의 4가지 세부영역으로 구성
 - A~Z까지 문자에 AI 가진 특징이나 키워드를 매칭하고, 알기 쉬운 일러스트를 곁들이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기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예정

[생산적 적대 신경망(GANs)과 페이크(Fakes)에 대한 일러스트]



자료: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https://atozofai.withgoogle.com/intl/en-US/>)

참고문헌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2020. 3. 20.), “Google and Oxford create 「The A to Z of AI」 explainer”.
CIO(2020. 3. 30.), “알파벳 26자에 담아낸 AI 이야기, 구글, 「The A-Z of AI」 발간”.

최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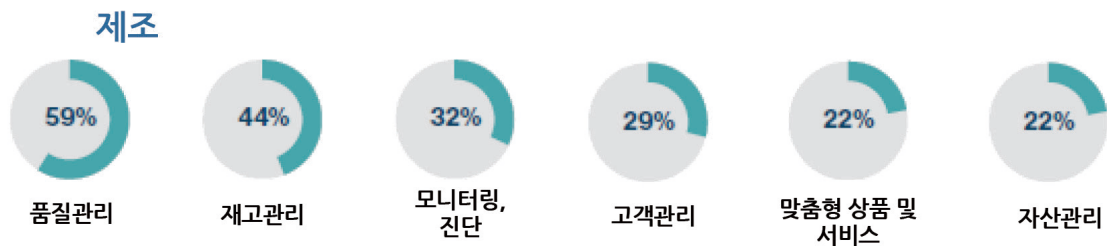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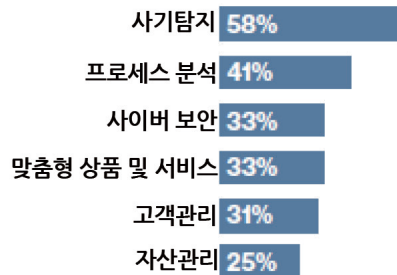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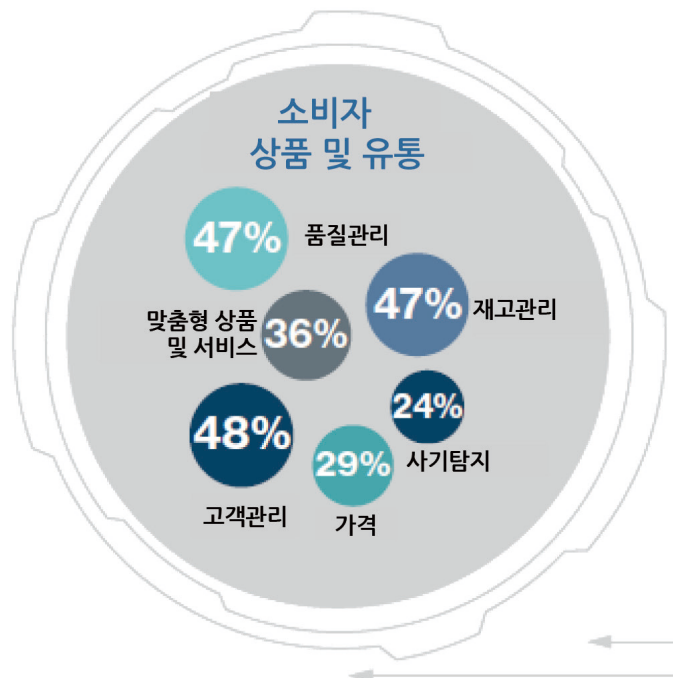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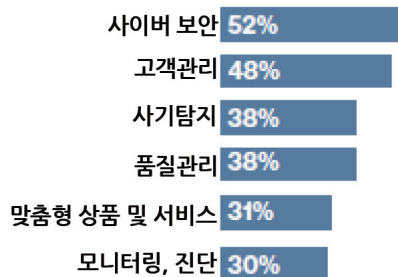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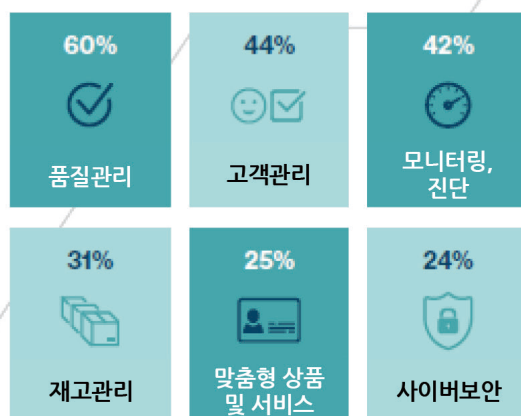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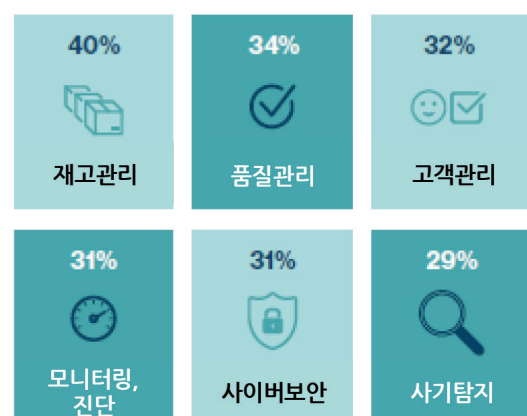
글로벌 AI 어젠다 :
「약속, 현실, 데이터 공유의 미래」

주요 내용

◆ MIT Technology Review Insights, 글로벌 AI 어젠다 「약속, 현실 그리고 데이터 공유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 발간

- ▶ MIT Technology Review Insights 연구 프로그램은 전 세계 AI 동향과 기업들이 미래에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해 탐구
 - (주요 내용) 전 세계 약 1,000명의 AI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통해 AI 활용 사례, 규모 확장, 비즈니스 및 사회를 위한 데이터 공유의 잠재적 이점 등에 대해 파악
 - (산업 분야) 제조(15%), IT 및 통신(14%), 소비자 상품 및 유통(13%), 금융 서비스(11%), 건강관리(10%), 기타 에너지, 운송 및 로지스틱스, 미디어, 정부 등에 이르기까지 11개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현황과 확장 계획에 대해 조사
 - (후속 연구) 향후 글로벌 AI 어젠다 후속 시리즈로 유럽, 아시아, 북미,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의 AI 트렌드에 대한 백서를 연속하여 발간할 예정
- ▶ AI 리더 대상 설문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AI 확산) AI가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지만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60%)는 사업 프로세스의 약 11~30%까지 3년 이내에 AI를 활용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제조업, 기술 기업 중심으로 AI 침투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AI 확산의 장애요인) AI를 활용하기 위해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환과 관련한 변화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1%), 그 밖의 비정형 데이터 통합 및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과의 인터페이스 한계 등 데이터 문제를 제기함(48%)
 - (AI 활용 영역) AI 활용이 높은 분야는 품질관리, 고객관리, 사이버 보안이며,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 의약 및 헬스케어는 품질개선(60%), 소비자 상품 및 유통은 고객관리(47%), 에너지 기업은 모니터링 및 진단(51%), 금융서비스는 사기탐지(58%), 기술 기업은 사이버 보안(52%) 영역에서 AI 활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데이터 공유) 초기 단계에서 데이터 공유는 AI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 기업의 3분의 2(66%)는 원칙적으로 내부 데이터의 외부 공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이전에 개인정보보호 규제(64%) 및 산업 표준화(58%)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응답함

[산업별 AI 활용 영역]

**금융 서비스****IT & 통신****의약 및 헬스케어****운송 및 로지스틱스****참고문헌**

MIT Technology Review Insights(2020. 3. 26.), "The global AI agenda: 「Promise, reality, and a future of data sharing」".



KISDI AI TREND WATCH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기간행물입니다.

KISDI AI전략센터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매월 15일과 30일에 온라인으로 배포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와 관련된 문의는 AI전략센터 안명옥 부연구위원(allexane@kisdire.kr, 043-531-4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